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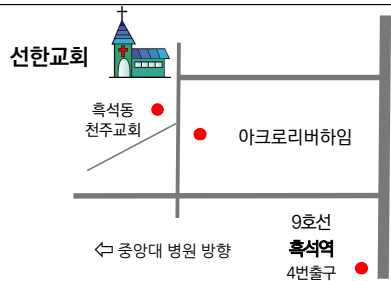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담임목사 임 춘 배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6장
교	독 문	교독문 36 (시편 90편)
찬	양 과 경 배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
대	표 기 도	박영근 장로
말	씀 봉 독	마태복음 7장 12절
설	교	황금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가 정 예 배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10월 4일(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한 주 더 연장합니다.

1. 주일예배: 11시 예배만 드림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추석명절관계로 이번주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가정예배로 대신합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민28~신7장/보충]
4. 경건서적읽기 : 부서별로 추천도서중 1권 선택 독서 후 나눔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가족들과 함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믿지않는 친척들에게 믿는자의 소망의 증거를 보여줄수 있기를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기를

가정예배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은혜의 말씀

찬송 : ‘사론의 꽃 예수’ 89장(통 89)

본문 : 마태복음 11장 20~30절

말씀 : 생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인간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기호식품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것이든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혜와 절제가 모자란 상태로 탐닉한다면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은 편리하고 강렬하며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에 쉽게 중독된다고 합니다. 중독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느끼며 불편하고 자극이 약하면 조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짜증도 자주 내고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 채 무너져 버립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더욱 강렬한 것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과 가족, 이웃에게까지 손해를 끼칩니다.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려 중독 없이 살 수 없는 노예가 돼 버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까지 확산하고 있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며 사는 우리는 호흡이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확산으로 취미 생활마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터마저 폐쇄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에 유혹을 받는 건 어렵습니다. 아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유했던 경험이 있고 누려봤거나 맛봤던 걸 못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증세는 불안과 초조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경에 놓입니다. 가장 나쁜 중독은 자기 자신만 믿고 사는 자기사랑 중독입니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낙담하는 포기 중독도 심각한 중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위험은 강력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도 찾아 왔습니다. 위기를 탈출하려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보내신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중독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인 셈입니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힘든 우리 삶과 신앙이 더욱 더 강건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목	황금률: 먼저 남을 대접하라(마7:12)	
서론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론	1. 황금률(Golden Rule)	
	(1)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12)	
	(2) ‘그러므로’와 ‘율법ियो 선지자니라’의 의미는: 성경(율법)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3)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 상태(자기 중심적)	
결론	(4) 이 명령을 지킬수 있는 방법: (마22:37-40) ①하나님 사랑 ②이웃 사랑	
	2. 교훈	
	(1) 나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가?	
	(2) 나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어느 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가?	
	(3)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먼저 대접하기’를 실천해야 할 대상이 있는가?	
결론	대접받기보다 먼저 대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박영근 장로	유신웅 장로

매일 Q.T.		진흙 구덩이에 던져짐	날짜 : 9월 28일
찬양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시되		
본문	예레미야 38:1~13		
	네 명의 방백들은,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염병에 죽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 이 생명의 길이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삼십 년 전에 선언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방백들은 왕께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므로 죽여야 한다고 참소하였습니다. 유다의 방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다가올 재앙에 대한 경고만 좋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방백들의 참소에 접한 시드기야 왕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은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방백들에게 아첨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취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말을 들은 방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구금시켰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의롭게 살려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놀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며 심지어는 가정과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참조, 딤후3:12). 성도들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핍박을 받게 되나 그 길은 소망의 길이며 영생의 길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사명을 따르는 신실한 종
찬양과 기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새 545) 하늘의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 나를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히브리인 여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종의 제안을 좋게 여긴 나아만은 아람 왕의 승낙을 받아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에게 달려와 정중히 맞이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직접 만나지 않고 사환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나를 것이라’는 말만 전합니다.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왕하 5:11). 나아만은 돌아가려 했으나 종들의 만류에 요단강으로 가 몸을 씻고 완치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존심 때문에 하마터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기회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여종도, 나아만의 종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어느 사람도 그분 역사에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말씀 나누기	예레미야 40:1~6	
묵상포인트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 마지막, 가장 어둡고 참담한 시기에 사역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백성이 대적에게 죽임 당하고 예루살렘성이 불타므로 인해 애통하면서도 자신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사령관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동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안락을 추구하기보다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포로로 잡혀가던 예레미야는 어디서 풀려나나요?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유다의 패망 이유를 무엇이라 말하나요?(1~3절)	
적용하기	내가 고난 당하는 이유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누군가 일깨워 준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불순종의 비참한 결과를 마음에 새기고,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 경책받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저 자신의 편의와 유익이 아닌, 사명의 자리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그다랴에게로 모이는 유다인들	날짜 : 10월 2일
찬양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본문	예레미야 40:7~16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 들의 사람들이 그다랴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군대에게 패하고 들로 도망쳤던 자들과 그들을 동조하여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요하난은 유다의 장래 운명을 좌우한 인물들입니다. 이스마엘은 나중에 총독 그다랴를 죽임으로써 유다 민족에게 재앙이 미치도록 하였고, 요하난은 하나님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반역하고 무리를 거스려 애굽으로 내려간 자입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는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유익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신은 갈대아인을 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다랴는 자신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지켜 살기에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손과 발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힘들고 벅찬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북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각처에서 그다랴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그다랴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과 그의 정책이 성공적임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 주는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대로 지켜 따르기만 하면 생명과 축복이 보장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묵상질문	내 삶이 어려울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예레미야의 예언	날짜 : 9월 29일
찬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 가며		
본문	예레미야 38:14~28		
	유다 왕 시드기야는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그를 여호와의 집 제삼문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고 그와 그의 가족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와의 밀담을 마치고 보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과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권고한 사실을 방백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방백들이 묻거든 자기를 요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말라고 간청하였다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태도는 그가 방백들을 두려워하였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앞에서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는 방백들이 왕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 시드기야가 일러준 대로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않기를 간청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참조, 왕하25:8-12;대하36:17-20). 이 같은 예레미야의 태도는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방백들에게 말한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질문	말씀을 대하는 내 모습은 누구와 더 가까운가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예루살렘 함락	날짜 : 9월 30일
찬양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본문	예레미야 39:1~18		
	본장은 예루살렘의 함락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되었고, 시드기야 왕과 그 일족은 예언대로 비참한 처지를 당하게 되었고, 요인 중의 대부분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는 수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본장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1-10절)와 예레미야의 석방 및 에벳멜렉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후반부(11-18절)로 구성되어 있다. 본장의 역사적 상황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B.C.586년이다. 당시 바벨론에 의해 웅립된 시드기야는 자신을 진정한 유다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바벨론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애굽, 암몬, 모압 등과 새로운 동맹을 결성하게 된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 반박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것을 주장했던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축복과 소망을 약속받게 되었다. 본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패역한 삶을 산 시드기야의 비참한 말년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교훈을 줍니다. 그의 자녀들이 목전에서 살해되고 자신의 두 눈이 뽑혀지는 참상은 그의 범죄로 인한 것임을 명심하고 철저히 불의와 죄악을 멀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묵상질문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삶을 바라보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유다에 남은 예레미야	날짜 : 10월 1일
찬양	찬송가 483장 구름같은 이 세상		
본문	예레미야 40:1~6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다의 다른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옮기던 중에 라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인데, 예루살렘 북쪽 8km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유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자유를 억압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라마에서 바벨론의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느부사라단은 지금 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재앙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느부사라단은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는 것과 유바에 남는 것 중 좋은 방향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에게 가서 유다 백성 중에 거하거나 원하는 길로 가도록 권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와 온 백성과 함께 거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에 머물고자 한 것입니다.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다랴의 부친 아히감도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묵상질문	내 선택의 변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